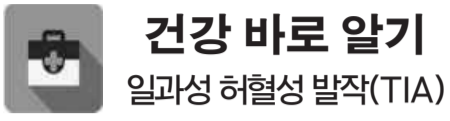


# 뇌경색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발작 반복될수록 위험



정현진

광주기독병원 신경외과 진료과장

우리나라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1위가 암이며, 뇌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위를 차지한다.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의 기능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한다.

반면 뇌혈류 감소에 의해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충분한 뇌혈류가 다시 공급돼 뇌조직의 과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되었을 때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부른다.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경고적인 신호 또는 전구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뇌졸중이 저절로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한 직후에는 특히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이를 이내에 5%, 1주일 이내에 11%의 환자에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발작이 여러 번 있을수록 뇌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원인 및 증상=동맥경화증에 의해 내막이 두꺼

뇌혈류 감소로 일시적 뇌기능 이상 어지럼증·마비·감각장애 등 보여 증상 발생시기·지속시간에 따라 약물 치료·수술적 처치 결정

워지는 죽상반의 형성, 그리고 피가 굳어서 생기는 혈전과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혈전이 혈관을 막아 생기는 색전증 등에 의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심장질환(심방세동, 심실 내 혈전 등)이나 혈관박리 등의 원인들이 있다.

또한 고령의 경우 나이가 들면 매 10년 마다 뇌졸중의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생 위험이 더 높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류의 감소로 인해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뇌혈관이 지배하는 뇌영역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마비, 반부전마비, 감각저하, 구음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등이 있으며 원인 혈관에 따라 상지 또는 하지에 더 심한 반부전마비와 얼굴마비, 실어증과 시야의 편측무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후방순환계 혈관의 경우에는 의식소실, 어지럼증,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복시), 마비, 감각장애 등을 보일 수 있다.

◇진단 및 치료, 예방=증상의 발생 시기와 정도, 지속 시간, 과거 병력, 약물 복용여부, 일반적 건강 상태 등 문진을 시행하고 남아 있는 신경학적 증상

이나 징후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며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질병을 구분하기 위해 기본적인 혈액 검사 및 뇌 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 뇌 영상 촬영에는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등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단일광자방출 전산화촬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으로 뇌의 혈류 상태, 포도당 대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간질발작을 감별하고 실시간 뇌의 전기생리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뇌파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급성 뇌경색의 가장 정확한 검사인 확산 강조 자기공명영상(diffusion weighted MRI)으로 검사해보면, 뇌졸중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을 뒤 뇌경색이 따라와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뇌졸중 증상이 잠시라도 있었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추후 뇌졸중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뇌졸중에 준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는 동맥경화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관련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개선하면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뇌졸중의 장기적 예방에 그 효과가 잘 확립되었으며, 뇌혈관에 이상이 생긴 원인과 전신 상태, 약을 계속 잘 복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적절한 약을 선택해야 하며,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 또한 뇌졸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수술적 치료는 국소적으로 좁아진 뇌혈관이나 목동맥혈관을 수술적 방법으로 넓혀주는 것을 생각



광주기독병원 정현진 신경외과 진료과장이 수시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사습관으로 인해 속목동맥 동맥경화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속목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이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이 초래된다면 목동맥내막절제술 또는 목동맥 스텐트삽입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중 스텐트 삽입술은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망(網)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목동맥 내막절제술과 비교해 봤을 때, 치료 성적과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

는 비슷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회복 시간이 짧은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뇌혈관질환은 적절한 운동과 체중유지, 금연, 금주로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술과 담배는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 위험이 높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기독병원, 로봇수술 200례 돌파

지난해 광주 최초 도입...“지역의료 발전·시민건강증진 최선”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사진)이 최근 로봇수술 200례를 기념해 병원내 다목적교육실에서 축하행사를 가졌다.

광주기독병원은 2021년 2월 광주에서 최초로 로봇수술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발하게 로봇수술을 시행해 온 결과 최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최단기간에 200례를 돌파하며 성공적인 수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로봇수술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월등히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의사의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그대로 재현하고 손 떨림을 보정할 수 있어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서는 할 수 없었던 동작이 가능하고 하기 힘든 동작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광주기독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는 개복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골반 내 장기 수술 분야인 비뇨의학



과와 산부인과 수술에서 로봇수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로봇수술 200례 돌파 축하행사에서 수고한 의료진을 표창하고 격려하였으며, 축하를 통해 “광주기독병원이 빠르게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의 의료시스템에 인공지능시스템, 로봇 치료시스템 등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최고의 의료시스템으로 지역 의료계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당뇨병·고혈압 조기 발생 녹내장 위험 예고 신호

2형 당뇨병 또는 고혈압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면 안과 질환인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위험의 예고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녹내장은 안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안압을 유지해 주는 눈 속의 체액인 방수(房水)의 배출구가 좁아지면서 안압이 상승, 망막의 시신경이 손상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개방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매우 좁아진 경우로 진행이 느려 자각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반면 폐쇄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완전히 막힌 것으로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전방각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 각막과 홍채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미국 텍사스 대학 메디컬센터 안과 전문의 카란 지트 코네르 교수 연구팀은 개방각 녹내장의 위험 요인인 2형 당뇨병 또는 고혈압의 조기 발생이 개방각 녹내장 발병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 수면무호흡증 방치 땀 뇌손상 유발

조기 진단·치료 중요...경증 수면무호흡증도 치료해야

수면무호흡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 1110명을 대상으로 8년(2011~2018년) 동안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도중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거나 상기도가 자주 좁아지면서 호흡을 방해하는 수면장애 증상을 말한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게 특징이다.

연구 결과 수면무호흡증 발생군에서는 집중력 및 시각정보처리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손상이 발생한 반면 수면무호흡증 호전군에서는 기존에 손상됐던 시각기억 경로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무호흡증 지속군에서는 정상군과 달리 시각기억과 관련된 뇌 손상이 발견됐으며, 이런 경향은 60세 이상과 남성에서 더 뚜렷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로 볼 때 수면무호흡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뇌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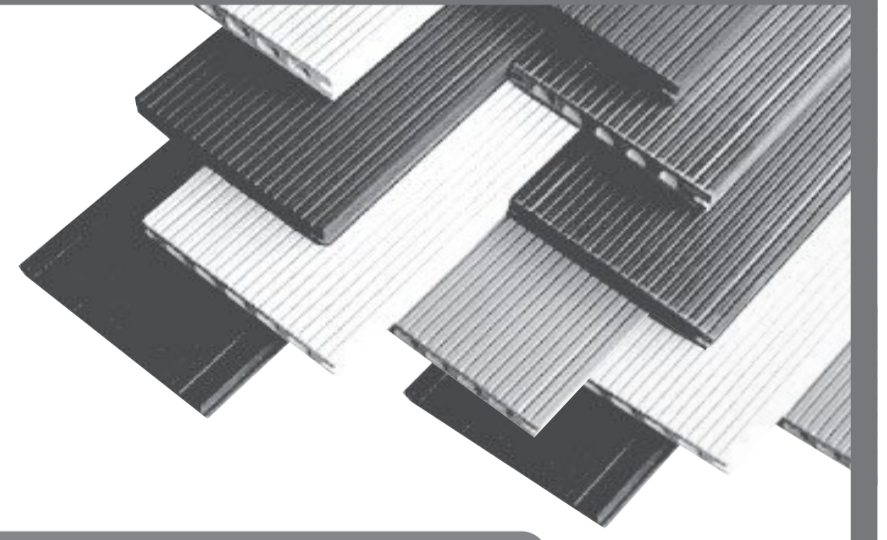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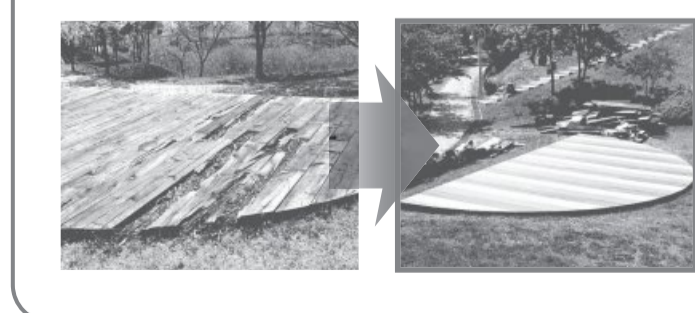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